

전쟁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시며 병거를 불에 태우시느니라.”**

사편 46:9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깊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정세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 왔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즐기며 심지어 당연시해 왔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긴장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테러 행위가 이제 우리의 헤드라인과 뉴스 보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광란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이 생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지상에서 선과 악의 세력 간 투쟁이 진행 중이다. 무장 호소가 있었고, 이는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움에 참여하라'는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인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합니다. 성경은 폭력, 전쟁, 살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어떻게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논의가 독자들이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묘사된 하나님

성경은 종종 전쟁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민수기 11:10, 33에 언급된 "여호와와 그의 진노"와

"여호와와 분노"가 그 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24; 히브리서 10:31). "보복과 갚음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신명기 32:35).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하신 때에 열방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5; 15:3

이스라엘의 전쟁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실 때, 그들에게 군대별로 인원을 계수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 가족대로, 그 조상의 집대로, 그들의 이름 수대로, 모든 남자를 계수하여 계수하라. 스무 살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이 군대별로
계수하라." 민수기 1:1-3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종종 전쟁의 지도자들에게 이끌렸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수" 여호수아는 천사로부터
여리고를 어떻게 멸망시킬지 지시를 받았다.
(여호수아 5:14; 6:2-5). 나팔 소리와 신의 개입으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호수아 6:20,2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나의
손가락을 싸우게 하시는 나의 선하심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의지하는 이시요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144:1,2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마리의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군대에 쫓길 때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10-14).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구원받았으며, 이집트 군대는 멸망하였다.

후일의 경험을 기록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미디안

자손에게 복수하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 몇 사람을 무장하여 미디안 자손을 치러 보내라 ...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을 보내어 전쟁에 나가게 하라 ... 그들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더라.” 민수기 31:1-8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구약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1,3,8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나니: ...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살인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수많은 과거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점에서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온갖 노력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지혜롭게 묻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수고를 보았노라." 9,10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니,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14

사랑의 하나님

앞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8,16; 신명기 12:2; 20:17).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를
알았노라." 아모스 3:2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져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주목하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붙게 하였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과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내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집안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3:11; 31:1).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14)

가나안 땅은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이었다. (창세기 11:31; 12:5-7).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당한 상속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해 있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는 끔찍한 상황이 존재했다.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 등 다른 민족들은 매우 타락하여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심지어 거짓 신들과 종교와 연관하여 인간 제물까지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신명기 18:9-14). 그들의 악행과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지혜와 공의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자신의 지시를 따라 더 높은 문명 수준에 도달할 백성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과 율법 체계를 세우셨다. 그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 율법 중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0:13).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적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하셨다. 레위기 26:3,6-8,14,17

일시적인 상황

구약성경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악과 증오, 전쟁과 가난이 만연한 현 시대가 일시적인 상황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과 증오, 절망과 가난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내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4; 11:9

신약성경의 전쟁 관점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여기서 곧 변화가 일어났음이 분명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그리스어: 로고스]"이라 불린다. (요한복음 1:1). 같은 장 후반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11절).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들에게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야 53:3

빌라도가 우리 주님의 재판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물으시되,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27:22).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고 손을 씻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라." (마태복음 27:25)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분은 이스라엘을 돕고자
간절히 원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하였더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려 하였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버려지리라.” (누가복음 13:34,35).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속적인 축복과 번영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도다.” 로마서 11:7,8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보기들

이제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홍해를 건넜느니라...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처럼 악한 것을 탐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1,6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고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3).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들

사도 베드로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모든 일, 즉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사도행전 2:39).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여전히 이 소망을 품고 있었다. "이 약속을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26:7).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상징적으로 말해 잘려 나갔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접붙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개인으로서의 이 이방인들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열매",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17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개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9).
“건축자들[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버린 돌[예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1:42,43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 누리던 지위는 사라졌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또한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출애굽기 19:6).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한 민족에게 주어졌으니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우리는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분리되고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모으신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5:14

폭력과 전쟁의 거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 드러난 가르침의 변화에 있어 확실히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폭력과 전쟁의 개념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에서 받은 계명보다 더 높은 계명, 더 높은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은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법이며,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온 모든 자, 영적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39)

죄의 결과인 폭력이 오늘날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거의 모든
문화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인 사탄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베드로전서 5:8)고 세상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으니”(고린도후서 4:4)입니다. (고린도후서 4:4).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폭력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 이웃 사이, 학교, 교회, 직장,
심지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폭력을 목격합니다.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셨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개인적 폭력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10,11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뽑아 그 종을 다치게 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힘이나 폭력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군단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복음 26:53). 그분은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쁘게 그 고난을 희생의 일부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행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께도 계신 마음이니라." 빌립보서 2:5

적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

우리 주님은 또한 원수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며 너희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처음에는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은 맞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조차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보복이나 증오의 행동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악이나 불의를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의 억압에 반대한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지만,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아모스 5:15).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값을 받을 것임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3:8

삶의 원칙

우리 주 예수님은 동정심, 온유함, 자비, 순결,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4-9).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온유함과 절제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분노와 악의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며, 항상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하고 순수한 뜻을 품고자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고 하셨으니, 이 싸움의 세상의 정서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1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은 평화롭게 살며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달린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서 12:18). 비록 상대방이 우리에게 평화를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의의 원수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음이라.” (요한복음 3:19).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지 않으시고, 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박해받을 때조차 원수에게도 이를 실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태복음 5:11,12).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16).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기독교인의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인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관한 권면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나그네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영혼과 싸우느니라.” (베드로전서 2:9,11).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29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심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여러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21). 또한 우리는 이렇게 권고받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람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13).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갚으라. 세금을 내야 할 자에게는 세금을, 관세를 내야 할 자에게는 관세를, ... 존경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존경을.” (로마서 13:7). 이 원칙들은 우리의 훈련된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특히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계시해 주신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불같은 시련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3). 이는 우리가 평생 동안 형성해 온 성품의

유형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 은, 보배로운 돌"로 비유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다른 재료로 부적절하게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나무, 짚, 짚단"으로 비유된 인간의 이론, 방법, 전통에 따라 세워진 모든 것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15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속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화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음을 보아왔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인류의 세상을 영원한 평화의 왕국,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평화의 왕"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9:6,7).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마무리 생각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원래의 약속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갈등 대부분은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과 관련되었으나, 이방인과 악한 나라들에 점령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이나 세상의 정부에 의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고 보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그들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4

예수님은 폭력과 전쟁의 개념을 거부하셨다. 그분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셨으며,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세우셨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2:37,39). 이 새로운 적에 대한 태도는 무력, 폭력, 살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14

곧 우리의 개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시며 병거를 불에 태우시리라." (시편 46:9).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약속하십니다: "너의 땅에서 다시는 폭력 이 들리지 아니하며 너의 경계 안에서 황폐함이나 파괴함이 없으리니 너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이사야 60:18). 전쟁과 다른 폭력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28,29).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회복되고 완전해진
땅에서 영원히 조화롭게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이 완성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3:21